

## 이석현 신임 일산불교병원장 인터뷰

# “2~3개 의료센터 집중투자”

## 특성화 양·한방 협진 통해 2년내 이익창출 다짐



이석현 일산불교병원장

대략 내년 5월에서 6월중에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대한 작업으로 당초 계획보다 2~3개월 지연될 수밖에 없지만 개원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구로병원장 재직 당시 흑자경영으로 능력을 인정받았다는데.

=4년 동안 재직하면서 무엇보다 진료의 전문화·특성화를 염두에 두었다. 이에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개의 의료센터

를 통해 치료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차별화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종이와 차트를 쓰지 않는 의료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첨단·선진형 병원을 구현할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진료료가 전산화되고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축적하게 되면 여러 환자를 동시에 접촉하는 것도 가능해 다른 병원보다 탁월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익분기점은 언제로 예상하는가.

=개원 후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수한 의료진과 특성화·첨단화된 병원시스템, 고객 위주의 행정을 결합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익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개원초기에는 450명상으로 시작하지만 2년 내에 844명상으로 확충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다. 앞으로 2~3년 내에 20~30만에 달하는 주민이 병원부근으로 입주할 예정이므로 전망은 더욱 밝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뿐 아니라 원거리리에 있는 사람까지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고양시당국과 교통망확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병원부근에 통행하는 마을버스도 증편할 계획이다.

-본교 구성원과 동문, 불교신도에게 주어지는 의료혜택은 무엇인지.

=동국대가족과 불교신도에게는 진료비 할인과 외부인보다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그런 만큼 동국인과 불교신도 모두 불교병원을 우리병원이라 생각하고 많은 애착과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가을엔 편지를 ... 비엔 가을 하늘은 파랗고 높기만하다. 맑은 가을하늘 아래, 오랜 친구에게 편지를 쓰자. 예쁜 편지지와 낙엽 한장의 낭만도 잊지 말고. 정기훈 사진부 객원기자 tal@dongguk.edu

# 용역직 노동자 복지 열악

## 휴게공간 없어 지하창고에서 휴식

본교 용역직 노동자들의 복지 실태가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학교 측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용역직 노동자는 학내에 청소, 경비직 등에 종사하고 있는 용역회사 소속의 직원들을 의미하며 현재 본교에는 청소 87명, 경비 60명 등 총 147명의 용역 노동자들이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특히 용역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학교의 사정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 >관련기사 4면

먼저 이들이 제대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며 시설도 심하게 낙후됐다. 청소 작업의 특성상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에 작업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청소 직원들에게는 별도의 휴게 공간은 필요하다. >이해 학내 각 건물에 이들을 위

한 휴게실이 마련돼 있지만 다른 공간이 배치하고 남은 공간이나, 지하 창고 등으로 건물 설계 도면상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장소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일부 휴게실에는 물이 새기도 하며 난방 등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의 어려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전달할 의사소통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실제로 이들은 학교 측에 2, 3년 넘게 건의한 것조차 시정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학교에서 일하는 용역직 노동자들의 경우 지위가 확고하지 않은 만큼, 건의가 들어와도 우선순위에 서 밀려 개선작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bob835@dongguk.edu

## 본사 주최 올해 총학생회 토론회

본사에서는 올해 제36대 총학생회 사업을 평가하고 다음 학생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학내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 2004. 11. 12(금) 오후 4시 30분

장소 : 동국관 L동 401호

이날 토론회 주요내용은 동대신문 제 1398호 11월 15일 자에 지면화될 예정입니다.

## 1400호를 함께 만들시다

##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동대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원서접수 : 11월 25일까지

전형일시 : 11월 25일까지 수시전형

응시자격 : 1학년 재학생

원서교부 및 문의 : V동 1층 동대신문사

2260-3491~2

# 단과대 선거 “투표하러 갑시다”

## 불교대·이과대·정산대 9일부터 3일간

불교대와 이과대, 정산대 학생회 선거가 오는 9일부터 3일간, 경영대는 16일부터 18일까지 각 단과대 투표소에서 치러진다. 각 단과대 투표소는 △불교대=문화관 3층 △이과대=명진관 3층, 혜화관 3층 △경영대=동국관 L동 2층 △정산대=정보문화관 3층 입구에 비치돼 있으며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또한 사범대의 경우 지난주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구본훈(국교)군이 단독으로 출마했으며 선거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다. >개표는 선거 마지막 날 6시부터 해당 단과대 학생회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총대의원회 의장 선출 등의 안건이 상정된 임시 대의원총회가 지난 3일 열렸으나 정족수미달로 무산됐다.

# 조계종 총무원장 장학금 전달

## 불교대 등 총 100명에게 100만원씩 수여

조계종총무원장 법장스님이 지난 2월 장학금으로 1억원을 우리 학교에 전달했다.

이번에 기증된 장학금은 불교대에서 74명, 그 외 단과대에서 26명의 학생들에게 수여 됐으며 각 수여자에게는 100만원의 장학금이 주어졌다. 이번 장학금은 앞으로 매년 지급될 예정이며 학업 성적이 우수

하고 조계종 신자로서 신행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학생에 한해 각 단과대에서 추천을 받아 지급될 계획이다.

한편 이와 관련한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4일 오후 2시에 본관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불교대 홍춘익(불교3)군이 대표로 장학금을 수여받았다.

동대신문 기획광고

발전기금 060-700-0119

# 주목하라! 그날이 온다!



# 행동하라! 변화가 온다!

## 각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가 11월 9일~11일까지 있습니다.

### 투표방법과 장소:

불교대 : 문화관 3층

이과대 : 명진관 3층, 혜화관 3층

정산대 : 정보문화관 3층

오전 10시~ 오후 6시까지

## 당신의 소중한 한 표가, 동국대의 변화를 이끌어 갑니다.

동대신문사

# 총장장학금 차명신청 올해도 논란

## 학교 조사착수 징계 불가피 할듯 ... 장학금 수혜선택 기준 다양해야

지난해에 이어 일부 학과 학생회장이 학생회 간부들에게 지급되는 총장장학금을 차명 신청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차명신청이란 학생회장이 다른 장학금을 수혜하고 있거나 수혜 기준 학점을 넘지 못하는 경우 다른 학생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차명신청은 이번학기 외에도 그동안 공공연하게 진행돼 왔다. 지난 2002년에는 총대의장이 차명사실을 시인하고 사퇴한 사건이 있었으며 지난해에도 일부 학과 학생회장이 적발돼 장학금을 환수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이번 학기 역시 차명사실이 밝혀져 자 학교측은 조사에 착수하고 차

명사실이 적발된 학생회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학생복지실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부당수혜자에 대해 장학금 환수 조치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습적인 문제로 징계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학생회는 학교 학생회 지원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장학금차명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한다. 이중 장학혜택을 받는 간부가 있을지 모르나 대부분은 총장장학금을 학교 활동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7학과 학생회장은 "행사준비 등 학과 공익을 위해 활발한 사업을 진행하려면 학생회비

만으로 부족해 장학금으로 활동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학과 학생들도 학생회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어 묵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차명을 방지하기 위해 수혜자명단을 본지를 통해 공개했음에도 문제가 반복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차명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회장이 장학수혜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즉 다른 학생을 위한 학생회 활동비 등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기준을 만들어 두는 것이다.

또한 학생회 간부들이 수혜받지 못하는 경우 그 금액이 다른 학생의 장학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같은 학과에서 차명신청에 대해 묵인하는 분위기도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학생복지실의 한 관계자는 "수혜되지 못한 장학금이 분위기도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적발됐을 때에는 강력한 징계조치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장학금 차명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황주상 기자  
hjs0228@dongguk.edu

## 사범대 선거 입후보자 인터뷰

### “학우들 곁으로 다가가 귀 기울일 것”



구본훈(국어교육3)

소하고 있다. 또한 현재 대학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까지 비정규직 계약 강사를 고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고용의 불안정성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학생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타 대학의 학생회와 연계한 강연이나 토론회 등을 개최해 논의할 계획이다.

- 이번 선거의 모토인 '당신의 소금인형이 되겠습니다'가 의미하는 비는.
  - = 가수 안치환의 '소금인형'이라는 노래의 가사 중 당신의 깊이를 알기 위해 나는 그곳으로 뛰어들겠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인용해서 만든 구호로 학생들과 학생회 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단절돼 있는 현실에서, 학우들의 곁으로 직접 다가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줄 것이라는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 현재의 교육 구조에서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 = 많은 학생들이 사범대 가산점 폐지에 대해 부담감을 호

-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 =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학림관 내 매점 설치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실제로 10년 넘게 이와 관련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사용할 매점 설치와 관련한 논의를 학교 측과 해나갈 생각이다. 또한 그동안 잘 이뤄지지 않았던 각 단과대 집행부별 연석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이에 대한 내용은 사범대 홈페이지를 개설해 공개할 생각이다.
-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이름을 걸고 ... 불교수행공동체 '정토회'는 지난 3일 상록원앞에서 음식 남기지 않기 10만인 서약 캠페인을 벌였다. 사진은 우리학교 학생들이 서명하는 모습이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 원총 선거 투표일 변경

### 오는 16일부터 3일간 두리터에서 진행

대학원 총학생회(회장=신정민·국문학 석사과정) 선거 투표일이 오는 16일부터 3일간으로 변경됐다. 이는 지난 1일 대학원 제1세미나실에서 있었던 선거 후보자 톨미팅에서 대학원 학생들의 수업일을 고려해 이같이 변경한 것이다.

또한 톨미팅에서는 예비선거를 통해 △기호1번=김선철(북한학 석사과정)·정재민(미술사학 석사과정)·조 스키호2번=김경신(연극영화학 석사과정)·유지선(연극영화학 석사과정)으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후보자들은 공동정책 자료집을 만들어 다음주 월요일부

터 배포하는 것에 합의했으며, 후보 연설회 및 정책토론회를 오는 10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두리터에서 진행하게 된다. 우천시에는 학술문화관 S동 지하 1층 대학원 휴게실에서 열린다. 이는 이번 선거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한편 지난 3일부터 후보자들은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했으며, 각 조에서 자체 발행하는 선전물 배포·선전활동 등은 대학원 휴게실에서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신정민 총학생회장은 "후보자 선전활동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 본교생 72% '학생회 반드시 필요'

### 축제 등 대중사업 긍정적 평가

본교 학생의 72%는 학생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그러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의 의견도 24%를 기록했다.

이는 총학생회(비대위원장=김제동·불교4)가 지난 10월 25일부터 14일만에 걸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학생회에 대한 현황진단과 새로운 학생회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총 1,024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학생회가 왜소하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개인적인 문화가 팽배해 있어 집단적인 학생회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들이 56%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다음으로 '학점을 따기 위해 바빠서 학생회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들이 20%, '학생회가 다양하고 창조적인 사업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들이 19%를 기록했다.

기타의견으로는 '학생회가 체계

적이지 못하다'는 의견과 '학생들의 요구를 모른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과 학생회가 올해 가장 잘한 사업을 묻는 질문에는 대동제나 체육대회와 같은 대중사업을 꼽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단과대 학생회 경우에는 학회연합 학술제, 과학캠프 등의 기타 행사들을 잘한 사업으로 꼽는 학생들이 많았다.

학과 학생회의 가장 부족한 점을 묻는 질문에는 '학생들을 위한 복지사업 부족'이라고 답한 학생들이 33%로 가장 많았고, 이는 단과대 학생회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학과 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가 해결주었으면 하는 사업들은 등록금 동결, 식당 문제, 기숙사 등 학내사안에 관한 것들이었다.

올해 총학생회가 잘한 일로는 '교육부 감사 문제로 교비환수 조치를 받은 일'이라고 답한 학생들이 47%로, 가장 못한 일은 '교육환경 개선을 많이 해내지 못한 일'이라고 45% 학생들이 답했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 인전무대

### 알바 급구

○...정보문화관에는 요즘 신종 아르바이트가 생겼다는데. 이유인즉 정보문화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경우 사물함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 일부 신입생들이 사물함을 자비로 구입해 이를 대여하고 있다고.

신입생들에게는 사물함이 전혀 주어지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공공차원에서 사물함 확충이 시급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무대자 알, "정산대의 떠오르는 신종산업은 사물함 대여래!!!"

## 반납 운동(?)

○...대학원생들은 도서관 늦게 반납할 통제가 높을 것이다!!

이유인즉 대학원생 혹은 문화관 이용생들은 학교의 지리적인 여건상 도서관 때문에 중앙도서관까지 오는 것이 힘을 부처한다고.

대학원생을 비롯해 학부생들도 학문탐구로 바쁜 만큼 도서관 반납기를 곳곳에 설치하고 일정 시간마다 회수하는 것이 유용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무대자 알, "대학원생들의 책 반납시간의 또 다른 이름, 체육시간!!!"

## '일방통행'

○...지난주에 어느 단과대 축제에서 '달린 음악회'가 열렸다는데. 알아보니 특수대학원, 야간수업 등이 밀집되어 있는 동곡관, 해화관 일대에서 열릴하게 가요제를 진행해 수업 진행과, 도서관 학생회에 지장을 줬기 때문이라는데.

해당 단과대만 즐기는 축제인 만큼 면화반위를 위해 소음을 최소화하거나 실내 공연을 한다던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무대자 알, "우리 단과대의 교감코드, 불륨을 높여라!!!"

## 편식 복사기

○...우리학교 무인카드 복사기들은 종이 편식을 한다는데. 알고보니 복사할 수 있는 용지 규격이 A4밖에 없어 다른 규격으로 복사를 하려면 복사실을 찾아야 한다고. 복사실이 문을 열지 않거나 사람이 밀려있는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학생들도 복사기의 취향에 따라야 한다는데.

이에 본 회전문무대자 알, "복사기야, 이것저것 골고루 취해야 튼튼하게 자란다!!!"

## 에코포럼, 20일 덕암세미나실

### '시스템과 상호의존성' 2회 정례포럼

제2회 정례 에코포럼이 오는 20일 덕암세미나실에서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는 '시스템과 상호의존성'을 주제로 하는 제1기 에코포럼의 제2회 정례포럼(철학분야)으로서 이경재(서울시립대 환경생태학)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최종덕(서지대 교양학부)교수가 기조발제를 하며 이종표(전남대 불교철학), 황태연(정치외교학), 한명수(한양대 해양환경생태학)교수가 지정토론을 맡아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갖는다.

## 해외인턴설명회 10일 중강당

인턴케어에서 실시하는 해외인턴설명회가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본관 중강당에서 진행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인턴과 취업 △인턴진행목적 △인턴진행 절차에 대한 소개가 진행되며 참가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영어 인터뷰의 기회가 주어지며 인턴정보책자

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현대·기아 자동차의 채용 상담회가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관 중강당에서 진행된다.

상담회는 학과에 상관없이 졸업예정자의 경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 전공설명회 실시

불교대 등 학부제가 실시되고 있는 각 단과대에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설명회를 실시한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불교대 = 11일 오후 2시 30

분, 학술문화관 K205 △사과대 행정학과 = 16일 오후 12시 30분, 동곡관 M307 △경영대 경영학부 = 10일 오후 4시~7시, 덕암세미나실 △경영대 경영정보학부 = 11일 오후 4시~6시, 덕암세미나실

	동곡관	상록원	교직원
월 (11/8)	콩나물국밥 (1800)	모듬어묵찌개 (1800)	된장찌개 (3200)
	참치문어볶음밥 (1800)	돈육파김치찌개 (2000)	북어해장국 (3500)
	탕수육 (2000)	콩나물비빔밥 (1800)	누지볶음 (3800)
화 (11/9)	비지락순두부찌개 (1800)	쇠고기국밥 (1800)	된장찌개 (3200)
	불고기 (2000)	닭조림 (2000)	날치알술밥 (3500)
	간자장 (1800)	리조육 (2000)	버섯불고기 (3800)
수 (11/10)	갈비탕 (2000)	만두육개장 (1800)	된장찌개 (3200)
	닭도리탕 (2000)	떡볶고기 (2000)	갈비탕 (3800)
	산채비빔밥 (1800)	김치볶음밥 (1800)	삼치구이 (3500)
목 (11/11)	햄숙어찌개 (1800)	비지락수제비 (1800)	된장찌개 (3200)
	비빔만두 (1800)	치킨가스 (1800)	꼬리곰탕 (6000)
	제육볶음 (2000)	오징어제육볶음 (2000)	산채비빔밥 (3500)
금 (11/12)	닭곰탕 (1800)	찌개백반 (2000)	된장찌개 (3200)
	오징어볶음 (2000)	카레리이스 (1800)	초밥우동 (3800)
	섭산적구이 (1800)	돈갈비찜 (2000)	닭도리탕 (3500)

## 동악게시판

- 루나릭스 신입부원모집**  
자격: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감독: 010-3137-5493
- 전자공학과 임시총회**  
11월 9일 오후 6시  
원흥관 E317
- 만화일 상영회**  
11월 9일 5시  
-보노보노, 메트로 폴리스  
11월 10일 6시  
-이누야샤, R.O.D  
학림관 J301
- 행정학과 연합 오프**  
11월 12일 ~ 13일  
장소: 대성리  
회비: 2만원이상
- 대학생 연합광고 동아리**  
애드피어 제9회 전시회  
11월 12일 ~ 14일  
오전 11시 ~ 오후 7시  
웰컴갤러리(동대입구역 1번출구)
- 제1회 은행달러 자력 검정시험**  
원서접수: 11월 15일 ~ 22일  
시험일시: 12월 11일  
오전 9시 ~ 오전 11시

- 원서교부 및 접수: www.kbi.or.kr
- 생물학과 실험실 체육대회**  
응시자격: 전공불문  
11월 14일 10시  
만해광장
- 동국대 자연과학연구원 특별초청 강연회**  
11월 9일  
오후 1시 30분  
해화관 G203
- (주)하이닉스반도체**  
모집부문: 연구개발직/ 기술직  
응시자격: 모집부문별로 상이함  
접수기한: 11월 22일까지
- (주)태광시스템즈**  
모집부문: 전산개발  
응시자격: 전산 관련 전공자  
접수기한: 11월 12일까지
- GLOBAL SURVEYORS AND INSPECTORS LTD.**  
모집부문: 신입 및 경력  
응시자격: 전공불문  
접수기한: 11월 13일까지



## 이주의보고역사

### 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 '고려불화 특별전' 개최

박물관(관장=홍윤식·역사교육)은 개관 30주년 기념행사로 '고려불화 특별전'을 호암미술관, KBS, 일본불교대학교와 공동 주최 하에 1993년 12월 11일부터 1994년 2월 13일까지 호암갤러리에서 개최했다.

전시된 작품은 일본소제 불화 14점, 국내소제 고려불화 19점, 고려사정 및 목판화 26건 등 총 60여 점으로 그중 보물 12점과 국보 7점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전시행사와 더불어 고려불화 봉영식이 1993년 12월 1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있었으며 그에 앞서 학술세미나가 '한국문화와 고려불화'라는 주제로 12월 11일 삼성생명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 정보산업대학원 신설 정보관리·산업공학과 설치해

학교당국은 1987년 11월 9일 정보산업대학원을 신설하는 등 대학원편제의 일부개편 및 학과의 신설, 입학정원의 증원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기획조정실에 따르면 특수대학원인 정보산업대학원을 신설하여 그 안에 정보관리학과와 산업공학과를 설치하는 한편, 4개학과와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한 것으로 문교부 당국으로부터 정식승인을 받아 확정됐다고 밝혔다.

## 아르바이트

## 취업

# 김용민 동문을 도읍시다

## 급성 골수성 백혈병 투병 중 ... 치료비와 헌혈증 절실

요즘 학내 곳곳에서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김용민 동문(농경99졸)을 돕기 위한 행사가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총학생회 비대위와 생자대 비대위는 김 동문의 치료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과 헌혈증 모으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생자대에서는 지난 달 23일에 학생들이 모금행사로 모은 헌혈증 1백장을 김용민 동문에게 직접 전달했다. 또한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생자대 축제인 풍년제 행사를 하면서 '김용민 동문 돕기 후원주점'에서 마련한 1백만원 상당의 수익금 전액을 김 동문의 치료비로 기증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월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던 김용민 동문은 현재 1차 항암치료를 마친 후, 2차 항암치료를 앞두고 있지만 집안 사정 상 치료에 있어 학생들도 참여가 가능한 상황을 알리며 모금활동과 헌혈증 모으기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생자대 비대위는 각계 각종 동문들에게도 김용민 동문 돕기 모금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겨울 방학 기간 중에는 김

동문이 일하고 있는 제천 농민회와 연계해 치료비 마련을 위한 일일주점을 마련할 생각이다. 현재 모금팀은 학관 로비와 동국관 식당, 생자대 학생회실 등에 비치돼 있어 학생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신용화(생명자원산업유통4) 군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치료비와 헌혈증이 절실한 만큼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모금활동에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 동국의 사람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신없는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하나 챙기는 것도 버거워 한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의 여유는 아름답다. 이에 우리 주위에서 생활하는 동국인 네명을 만나 그들의 얘기를 들어 보았다.

### 동학의 아침을 여는 사람들



**동트기 전 깨끗한 학교 위해 손놀림 분주한**

#### ■ 청소원 이순애 씨

새벽 5시, 아직 동이 트지도 않은 시간에 이순애(59세) 씨는 강의실 청소를 시작한다. 학생들이 강의실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8시전까지 청소를 끝마쳐야 하기 때문에 손놀림은 분주하다. 정해진 출근시간인 7시보다 2시간이나 일찍 출근해야 함에도 싫은 내색도 없이, 다 이해한다는 듯 환한 웃음을 짓는다. "서로를 위해 조금씩 배려하자"는 소박한 당부를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을 다하고 학생들 모두 자신의 지식처럼 생각하고 있다며 학생들 역시 자신을 가축처럼, 어머니처럼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가끔 지나가면서 '수고합니다'라는 짧은 따뜻한 학생들의 인사말이라도 들을 때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한다. "서로를 위해 조금씩 배려하자"는 소박한 당부를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공사 안전 점검위해 한 시간 일찍 출근하는**



#### ■ 시설관리팀 직원 박건 씨

교직원인 돼 처음 시설관리팀으로 발령을 받은 지 어느덧 1년 2개월이 되었다는 박 건(31세)씨. 부서 특성상 건물보수나 토목공사 일이 많아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학교에 도착해 이곳저곳 살피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동안 학내 공사와 관련해 다양한 일들이 많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중앙도서관 냉각탑 공사라고 한다. 사연인즉, 방음공사 중 소음측

정을 위해 새벽 2시에 학교에 나오려고 택시를 타고 후문쪽에 있는 제일병원 앞에서 내리자, 택시기사 아저씨가 아이가 태어나서 새벽에 병원에 오는 줄 알고 축하해 주더라는 것. 본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그는 후배들에게 겨울이 되면 한 달 난방비가 1억원이나 되는 달도 있다며, 조금만 더 학교물자를 아껴쓰자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 동약로 공학 인증제의 달레마

“복수전공을 지원하고 싶은데 공학인증제 때문에 못할 것 같아”  
“다양한 전공과목을 듣고 싶은데 BSM과목 들느라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신청 못해.”  
공대에 재학 중인 두 학생은 서로 공학인증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공학인증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공학인증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공학인증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하지만 문제는 강제성이다. 현재 우리학교의 공학인증제도는 컴퓨터공학과를 제외한 8개 학과가 이를 이수해야만 졸업할 수 있는 의무교육인 것이다. 더구나 공학인증제에 필요한 과목들은 전공강의와 시간이 겹쳐는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오전 8시에 자리잡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생회 선거에서 한 후보자가 이를 선택 사항으로 바꾸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기까지 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우리학교가 공학인증을 받기 위해서 '전체학생이 수강한다'는 충족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보산업대 조성구(산업시스템공학)학장은 "우리학교가 다른학교에 비해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학인증제를 도입하려면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희생이 불가피한 것이다. 기초 소양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공학사를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이다. 하지만 그 전에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수정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황주상 기자 hjs228@dongguk.edu

### 학과소식

#### 철학과 창립50주년 기념행사 세미나 등 한달동안 진행

우리학교 철학과가 창립50년을 맞아 기념학술대회와 이와 관련한 행사들을 11월 한 달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제25회 디오니소스제'가 철학과 학생회의 주최로 오는 12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학림관 3층 교육매체 센터에서 열린다. 이는 50년 기념 학술대회의 일환으로 '철학을 공부할 마음은 있는가'를 주제로 강유원 박사의 초청 강연과 신승우(철도학)의 논문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오늘(8일)부터 5일 동안 동서사상연구소의 주관으로 우리학교 철학과와 북경대 고적위 간의 공동세미나가 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에서 진행된다. 이 밖에 동국대학교 철학과 총동창회 주최 '50주년 기념 동문인의 밤'이 오는 12일 타워호텔에서 오후 7시부터 열린다.

#### 미술학부 졸업전시회 오늘까지 문화관에서

2004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졸업전시회가 오늘(8일)까지 학술문화관 K동 지하 1층 갤러리 동국과 각 학과 실습실에서 열린다.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한국화·서양화·조소·불교미술전공 졸업예정자 총 50여명의 학생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 동국커리어파워업 프로그램 내일부터 2일간 ... 협상분야 주제로

졸업생의 추후지도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열린 '동국 커리어 파워업 프로그램'이 내일(9일)부터 2일간 2차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예술극장에서 오후 7시에 열리며 '협상력은 곧 경쟁력이다'를 주제로 김병국 박사가 진행한다. 강의 개요를 살펴보면 협상의 이해와 접근, 성공적 협상을 위한 기술, 협상진행의 과정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협상에 대한 분야이며 앞으로 전략기획, 문제해결, HRD(인적자원개발)분야가 차례대로 진행된다.

### 동학의 밤을 담은 사람들

#### ■ 영문과 장시기 교수

**학자의 역할 묵묵히 수행하며 밤하늘 밝혀**



동학의 연구실에는 밤늦게까지 퇴근하지 않고 불을 밝히고 있는 교수들이 많다. 지난 금요일 밤, 비가 무척 많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연구실에서 원고를 쓰고 있던 장시기(영어영문학) 교수. 평소에도 오후 11시 즈음 퇴근한다며 "원고마감 때문에 오늘은 밤을 새 것 같다"고 말하며 미소 짓는다. 그는 요즘 남아프리카공화국

문학 연구에 한창이다. 다음해 2학기부터 1년 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대학에 연구원 교수로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일이 많은데 요즘 학교 중앙 서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조금 불편하다고 한다. 사람들이 퇴근하여 쉬는 시간에도 학자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교수들. 동국의 하루를 담은 이러한 교수들이 있기에 동국의 밤하늘은 밝다.

#### ■ 회계학과 김재호 군

**목표 위해 야도 주5일 나오는 도서관 지킴이**



오늘도 어김없이 10시 30분이 되자 야도에 퇴근도장을 찍고 나오는 김재호(회계4)군. 입시지옥에 사는 고등학교 3학년을 연상시키는 묵직한 가방을 메고 야도 앞을 나서는 '도서관 지킴이'와 이야기를 나눴다. 도서관 지킴이인 김 군은 주말에 야도를 나오지 않고 휴식 아닌 휴식을 취한다. 회계사가 목표인 그는 주말마다 회계사를 공부하는 사람들과 모여 '스터디'를 하

기 때문이다. 야도에 주 5일 근무를 하는 셈이다. 김 군은 군대를 마친 후 자신의 진로에 대해 다양하게 고민하다 결국 편입을 선택했고 과감히 이 공계에서 인문계 분야로 진로전환을 시도했다고 한다. 그는 다음해 2월에 있는 회계사 시험을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성실하게 자신의 목표에 또 다른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 일본종주사 주지 도서기증 현대어역정법안장정 등 80여권

일본 도원승가담장 종주사 주지인 니시지마 와부 스님이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경주캠퍼스 중앙도서관에 각각 '현대어역정법안장정' 12권 등 약 80권의 본인 저작의 전집을 각각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오는 10일 불교대학원 주최의 '제2기 불교경영자 최고

위과정'의 초청강연을 기념한 것으로 이에 대해 중앙도서관 측에서는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전 동국대 석좌교수이며 현재 일본 속덕대 학장인 이시카미 요시오 교수가 오는 9일에 본인 소장 도서 약 5천 여권을 기증할 계획이다.

## 2005학년도 전기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입생모집

동국대학교 대학원은 한시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p><b>일반대학원</b> <small>주간</sma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집학과: 석·박사학위과정 전계열 전학과</li> <li>원서접수: 2004.11.4(목)~11.11(목)</li> <li>원서접수: 2004.11.10(수)~11.12(금)</li> <li>원서접수: 2004.11.27(토)</li> <li>홈페이지: <a href="http://graduate.dongguk.edu/gs">http://graduate.dongguk.edu/gs</a></li> </ul> <p>대학원 교학부 02)2260-3094~5</p>	<p><b>불교대학원</b> <small>야간</sma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집학과: 불교학과, 불교사학과, 불교사회복지학과, 정례문화학과</li> <li>원서접수: 2004.11.15(월)~11.25(목)</li> <li>원서접수: 2004.11.20(토)</li> <li>원서접수: 2004.12.1(수)~12.2(목)</li> <li>홈페이지: <a href="http://graduate.dongguk.edu/bs">http://graduate.dongguk.edu/bs</a></li> </ul> <p>불교대학원 교학부 02)2260-3097~8</p>	<p><b>행정대학원</b> <small>야간</sma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집학과: 행정학과, 인분행정학과, 공인행정학과, 복지행정학과, 북한학과</li> <li>원서접수: 2004.11.1(월)~11.16(화)</li> <li>원서접수: 2004.11.20(토)</li> <li>원서접수: 2004.11.27(토)</li> <li>홈페이지: <a href="http://graduate.dongguk.edu/pa">http://graduate.dongguk.edu/pa</a></li> </ul> <p>행정대학원 교학부 02)2260-3101~3</p>	<p><b>경영대학원</b> <small>야간</sma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집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경영정보학과, 부동산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li> <li>원서접수: 2004.11.15(목)~11.25(목)</li> <li>원서접수: 2004.11.27(토)</li> <li>원서접수: 2004.12.1(수)</li> <li>홈페이지: <a href="http://graduate.dongguk.edu/ba">http://graduate.dongguk.edu/ba</a></li> </ul> <p>경영대학원 교학부 02)2260-3106~7</p>	<p><b>교육대학원</b> <small>야간</sma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집전공: 교육학과, 교육정책학과, 교육과정학과, 교육평가학과, 교육심리학과, 교육철학과, 교육사회학과, 교육문화학과, 교육행정학과, 교육정보학과, 교육공학학과, 교육복지학과, 교육국제화전공</li> <li>원서접수: 2004.11.15(월)~11.19(금)</li> <li>원서접수: 2004.12.4(토)</li> <li>원서접수: 2004.12.11(토)</li> <li>홈페이지: <a href="http://graduate.dongguk.edu/edu">http://graduate.dongguk.edu/edu</a></li> </ul> <p>교육대학원 교학부 02)2260-3110~1</p>	<p><b>언론정보대학원</b> <small>야간</sma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집학과: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출판편집학과, 정보관리학과</li> <li>원서접수: 2004.11.8(월)~11.23(화)</li> <li>원서접수: 2004.11.24(수)~27(토)</li> <li>원서접수: 2004.12.29(일) 중 선택</li> <li>홈페이지: <a href="http://graduate.dongguk.edu/ci">http://graduate.dongguk.edu/ci</a></li> </ul> <p>언론정보대학원 교학부 02)2260-3722~3</p>
<p><b>산업대학원</b> <small>야간</sma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집학과: 건설-환경공학과, 식품-화학공학과, 컴퓨터-전자-정보통신공학과, 디자인-경영공학과</li> <li>원서접수: 2004.11.17(수)~11.30(화)</li> <li>원서접수: 2004.12.4(토)</li> <li>원서접수: 2004.12.11(토)</li> <li>홈페이지: <a href="http://gsite.dongguk.ac.kr">http://gsite.dongguk.ac.kr</a></li> </ul> <p>산업대학원 교학부 02)2260-3603~4</p>	<p><b>문화예술대학원</b> <small>야간</sma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집학과: 문예창작학과, 공연영상예술학과, 불교예술문화학과, 예술경영학과, 예술치료학과</li> <li>원서접수: 2004.11.8(월)~11.16(화)</li> <li>원서접수: 2004.11.20(토)</li> <li>원서접수: 2004.12.1(수)</li> <li>홈페이지: <a href="http://graduate.dongguk.edu/ca">http://graduate.dongguk.edu/ca</a></li> </ul> <p>문화예술대학원 교학부 02)2260-3606~7</p>	<p><b>국제정보대학원</b> <small>야간</sma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집학과: 정보보호학과, IT-Business학과, 영어통-번역학과</li> <li>원서접수: 2004.11.15(월)~11.23(화)</li> <li>원서접수: 2004.11.20(토)</li> <li>원서접수: 2004.12.1(수)</li> <li>홈페이지: <a href="http://ia.dongguk.ac.kr/~ia">http://ia.dongguk.ac.kr/~ia</a></li> </ul> <p>국제정보대학원 교학부 02)2260-3731~3</p>	<p><b>불교문화대학원</b> <small>주간</sma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집학과: 불교학과, 불교예술학과, 인간학과</li> <li>원서접수: 2004.11.8(월)~11.18(목)</li> <li>원서접수: 2004.11.20(토)</li> <li>원서접수: 2004.12.1(수)</li> <li>홈페이지: <a href="http://gsbc.dongguk.ac.kr">http://gsbc.dongguk.ac.kr</a></li> </ul> <p>불교문화대학원 교학부 054)770-2393~5</p>	<p><b>사회과학대학원</b> <small>주간</sma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집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국제관계학과,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li> <li>원서접수: 2004.11.29(월)~12.10(금)</li> <li>원서접수: 2004.12.11(토)</li> <li>원서접수: 2004.12.18(토)</li> <li>홈페이지: <a href="http://www.dongguk.ac.kr">http://www.dongguk.ac.kr</a></li> </ul> <p>사회과학대학원 교학부 054)770-2093~4</p>	

### 대학내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의 실태를 분석한다

# 부당한 복지·처우 실태, 인권 침해의 높으로

## 최저임금 못 미치는 대우 등 ... 정책보완과 학내 구성원의 관심 필요



지난 10월 민주노동당 최순영 국회의원은 '대학 내 용역 노동자 실태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통해 국내 242개 대학 중 75개 대학에서 현재 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일부 학교의 경우 계약서에 정확한 근무시간을 적시하지 않아 부당하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직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 공간조차 설치되지 않은 대학도 상당수 있어 대학 내 용역 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전체 대학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열악한 노동환경

올해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노동자의 법정 최저임금은 641,840원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학교 용역직 노동자들의 경우, 청소직을 맡고 있는 남자 노동자는 월 68만원, 여성의 경우 63만원을 받고 있어 여성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비를 맡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총괄적

인 책임을 맡고 있는 대장직의 급여가 월 120만원, 일반 대원이 88만원으로 24시간 격일제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 역시 실질적으로 계약서의 명시된 시간보다 1, 2시간 길다. 실제로 계약서상에는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청소직의 경우 학생이나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인 오전 8시까지는 모든 청소를 마쳐 놓아야 하기 때문에 새벽 5시 반에서 6시까지는 학교에 도착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경비직의 경우는 도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학내 근무지에서 물건을 도난당했을 경우 외부 침입과 내부 침입으로 분류해 외부 침입일 경우에만 이에 대한 담당 노동자의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묻고 있다고 하지만, 내·외부 침입에 대한 뚜렷한 경계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책임이 전가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일부 대학서 노조 결성 활발

이러한 노동자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사설 용역 업체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임금이나 복지를 요구하기는 힘들며 학교 직원노동조합의 도움을 받는 것 역시 어려운 실정이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부당함을 호소할 경우 이는 자칫 해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정규직이라는 점과 용역업체 소속의 노동자라는 이중의 굴레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용역직 직원들은 현재의 상황을 고쳐나가기 위해 일부 학교에서 직접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지난 2000년 1월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39만원이라는 액수로 삭감한 것에 반발해 41일 간의 파업 끝에 시설관리 노조를, 고려대 역시 48만원이라는 저임금에 항의하여 올해 청소용역직부 노조를 결성했다. 이에 더해 고려대에서는 이러한 시설관리노조와 학생들의 학생들이 연계해 '불철주야'라는 단체를 만들어 학교 측에 이들을 위한 임금이나 복지 등에 대해 함께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그 밖에도 현재 부산대, 서강대 등에서도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있는 상태다.

### 정책적 보완과 관심 필요

이들의 용역 업체와 학교 측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그들만의 노력으로는 이를 해결해 나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정책적 내용의 보완과 학내 주체인 학생, 교수, 정규직 직원들의 관심 역시 뒤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민주노동당에서는 지난 7월 12일 국회에 비정규직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제출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이들에 대한 복지와 처우에 대한 정책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대학들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처우와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야 할 것이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위) 학리관의 창고를 개조한 휴게실. (아래) 새벽부터 청소를 하고있는 노동자들.

### 우리학교 교수 연구현황 점검

# 정교수까지 교원업적평가 결과 적용해야

##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교수들의 자기 계발노력 중요

대학 연구사업의 활성화는 경쟁력 있는 대학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올해 4월에 산학협력단의 발족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한 산학협동분야와는 달리 교수 연구부문은 별다른 성장을 보이지 못한 실정이다.

대학종합평가, 중앙일보 전국대학평가와 같은 대외평가에서도 교수연구부문은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한다. 지난 9월에 발표된 중앙일보평가를 살펴보면, 우리학교는 교수 연구와 관련된 11개부문에서 단 하나도 20위권 순위에 들지 못했다.

### 자발적 참여 제도개선 필요

교수연구 부문이 타대학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연구공간 부족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본교는 교수 1인당 1실의 연구실

이 확보되지 않아 2명이나 3명의 교수들이 함께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연구공간이 부족해 연구과제 공모에 선정되지 않을 때도 있다.

다음으로 교수연구 관련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연구처에서는 연구년제도 확대와 교원업적평가 연구부문 관련 개정 등을 통해 교수들의 연구 질적·양적 향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오히려 연구부문 점수가 0점인 교수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교수들의 자발적인 연구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함께 우리학교의 교원 업적평가제도의 적용대상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평가 결과의 적용 범위를 전임 강사 이상의 전 교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각 대학에서는 매년 교원 업적의 체계적인 평가·보상·지원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교원업적평가를 실시한다. 교원업적평가는 연구업적, 교육업적, 봉사업적으로 이뤄지고 이러한 교원업적평가의 결과는 교원의 정년보장 심사, 승진 및 재임용 평가, 우수교원 선정에 반영된다.

기본적인 목적과 틀은 비슷해도 우리대학과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의 교원업적평가 제도는 큰 차이를 보인다. 그것은 바로 적용대상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학교를 제외한 세 대학은 전임교원 이상의 모든 교원에게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지만, 본교의 경우에는 정교수 이상의 교원들은 교원업적평가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 본교 전체교수의 과반수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정교수들에게 교원업적평가란 유명무실한 제도인 것이다.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를 비롯한 서울 시내 주요대학들은 정년보장심사를 통과한 정교수부터는 인사와 더불어 호봉승급에 교원업적평가의 결과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호봉에 교원업적평가의 결과를 적용하는 승봉제를 도입한 연세대 연구처의 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교수 연구가 질적·양적 향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타대학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학교의 필수연구업적 기준은 계열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필수연구업적 기준 높여야

필수연구업적과 관련하여 우리학교는 각 계열별 특성을 고려한 차이를 두지 않고 △조교수 승진의 경우 SCI 및 국내저

< 3개 대학 필수연구업적 기준 비교 >

	우리학교	연세대(공학분야)	고려대(공과대학)
전임강사에서 조교수 승진	SCI 및 국내저명 120점 이상	국제 2등급이상 학술지 논문 3편	SCI급 1~2편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	SCI 2편이상 또는 SCI 평점 200점 이상	국제 2등급이상 학술지 논문 3편	SCI급 3~4편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	SCI 2편이상 또는 SCI 평점 240점 이상	국제 2등급이상 학술지 논문 5편	SCI급 5~6편

명 120점 이상 △부교수 승진의 경우 SCI 2편이상 또는 SCI평점 200점이상 등의 일괄적인 기준만을 두고있다. 연세대, 고려대의 경우 인문분야, 이학분야, 예·체능 분야에 따라 필수연구업적의 차이를 두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우리학교에서도 각 계열별 특성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 평가기준의 정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다. 평가기준이 합리적일때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승진에 필요한 필수연구업적의 기준도 타대학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할 경우를 예로 들면, 연세대 경우 12학점에서 14학점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문분야는 국내 1등급 이상 학술지 논문 4편이

고 고려대 경우 인문·사회계열은 학술지 논문 5편이다. 이에 비해 우리학교는 SCI 2편이상 또는 SCI 평점 240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학교의 필수연구업적은 계열별로 세분화되어야 하고 승진에 필요한 기준도 높아져야 한다.

내년 5월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하는 대학종합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조속히 교수연구업적평가 제도에 관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물론 교수연구 향상은 단순히 대외적인 평가 순위를 높이기 위한 가시적 도구 보다는 궁극적으로 본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 영원히 푸른 고전의 숲

동서를 막론하고 고전은 인간정신을 고양시키고 함양하는 토대가 되어왔다. 서양은 매우 오래된 철학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그 뿌리는 히랍 철학에 있다. 이 때문에 화이트 헤드는 "서양철학의 보고(寶庫)는 플라톤이고, 그 이후의 철학은 이것에 대한 주석이다"라고 말했다. 동양 또한 서양의 경우와 비슷한데, 이른바 유(儒)·불(佛)·도(道)가 동양 사상, 특히 동아시아 정신의 바탕이 되어왔다. 유교를 대표하는 경전은 육경(서경, 서경, 예기, 악기, 춘추, 주역)과 사서(논어, 맹자, 중용, 대학)이고, 도교를 대표하는 경전은 노자의 '도덕경'과 장자의 '남방경'이다. 한편 불교를 대표하는 경전은 아함, 방등, 반야, 법화, 화엄 계통의 경전과 선종의 어록들이 있다.

이러한 많은 경전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학생들이 좀 더 노력을 들여서 앞에서 언급한 경전들에 대한 해설서라도 충분히 읽어, 그 대략적인 의미라도 파악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도덕경'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어줬으면 한다. 내가 이 책을 추천하는 것은 단지 요즈음 노자 사상이 한국 사회에서 많이 논의되고, 본인의 전공이기 때문은 아니다. 노자의 사상이 현대 사회의 병통을 치유하고, 젊은이들의 편협한 생각을 부수어, 열린 마음을 되찾게 하는 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현대는 모든 방면에서 서양의 정신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이다. 이는 종교, 철학, 과학의 세 방향으로 압축시켜 살펴볼 수 있다. 이 세 측면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어느 하나



## ■ 도덕경

### 현대사회 병통 치유 편협한 사고 탈피도움

를 떼어서 생각하기 어렵다. 서양의 종교, 철학, 과학이 지닌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서양 사상의 토대가 되는 것은 존재자들 사이의 질적인 차별을 전제로 한 대립의 구조이다. 다시 말해 신과 인간 그리고 자연물들 사이의 간과할 수 없는 질적 차이와 등급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념의 토대 위에서 전제된 종교 또한, 아무리 평화를 표방하더라도 결국 대립과 투쟁을 벗어날 수 없다. 철학도 본체와 현상, 존재와 존재자, 이성과 감성, 마음과 물체의 대립을 해소할

수 없으며, 과학 역시 주관과 객관, 인간과 자연의 대립적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노자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려고 하는가? 노자는 이러한 관념의 대립 구조가 본래 외계(外界, 외부 세계)에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주관적 관념(이성의 형식)을 외부에 투사한 결과라고 설파한다.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도 마찬가지로이다. 선한 실재와 악한 실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요, 아름다움과 추함 역시 달리 분리시켜 볼 수 없다고 말한다. 혹자는 이러한 노자의 사상이 서양의 해체주의와 유사하다고 한다. 여기에서 해체란 이성의 형식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성된 모든 가치 판단의 해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노자의 사상은 인간이 만든 문명의 병적인 측면과 역기능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인 시각만을 함축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노자 사상의 안목에는 보다 큰 긍정이 전제되어 있다. 즉 순수자연을 완전히 자발적이고 자존적이며 자율적인 존재로 보아, 그 어떤 타율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참다운 생명(生命)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인간과 만물이 이 근원적 본성(자발적이고 자존적이며 자율적인 본성)을 분유(分有)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양에도 "비논평성이 진리이다"라는 말이 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있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구름만 감히 태양은 다시 빛날 것이다. 이처럼 학생 여러분들도 모두 노자로부터 본성의 밝은 빛을 깨달아, 다 함께 참된 자유를 증득하기를 바란다.

김 항 배  
문과대 철학과 교수

바다에 안나가 본 사람들은 모른다. 바다도 삶의 터전이라는 사실을, 삼면이 바다인 우리 역사에서 바다가 차지한 비중이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조선은 조금 특별한 사회이고 체제였다. 성리학을 주된 사회주의 논리로 삼고, 양반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여 사회분위기가 역동적이지 못했고, 학문과 농업 외에는 천시하였으며, 특히 원양어업과 항해 교역은 원천적으로 제한되었다.

이런 사회분위기에서 다양한 가치관을 경험할 기회는 드물었다. 극소수의 사람들, 예를 들면 사신단과 그들을 따라가는 공식 비공식 수행원들 뿐이었다. 그러나 기행도 없었지만 기행문학은 더욱더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우연이지만 막혀있었던 바다를 건너 중국의 강남지방에 상륙한 선비가 있었다.

그는 표해록의 저자인 최부(崔溥)이다. 호가 금남(鎭南)인 그는 젊은 나이에 요직을 두루 거치고, 당대 최고의 김충주의 학맥을 이은 전형적인 선비이다. 제주도에 파견되었다가 부친상을 당해 1488년 성종 19년 1월 3일인 한겨울에 제주를 출항하였다. 그리고 풍랑을 만나 생사를 헤매면서 14일간 표류하다가 중국의 남쪽인 절강성 임해에 도착하였다.

모든 출입이 통제되던 때라 출몰하던 왜구로 오인 받아 죽을 뻔하였으나 그의 학식과 인품 덕분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곧 관원들에게 인계된다. 그때부터는 일행들과 함께 명의 해안과 육지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과 그들의 생활, 관리와 정치체제 등을 경험하고 관찰한다.

한편으로는 조선과 비교하여 장단점을 인식하고 평가한다. 이렇게 수도인 연경을 거쳐 고구려의 땅인 요동을 지나 꼭 6개월 1일 만에 귀국하였다.

그리고 왕명을 받고 청파역에 머무르면서 1주일 만에 힘들었던 표류과정과 중국에서의 다양한 경험, 견문을 책으로 엮었다. 그 후 1504년인 51세에 연산군에 의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 책은 처음에는 '중조 견문기'라고 하였다. 하지만 곧 '표해록'이라고 고쳐지고 그 이름 그대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중국지역으로 가는 육로의 과정과 경험을 기록한 연행록은 여러편 되고,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들이 기록한 해사록 등도 여러 편 있다. 하지만 해로로 중국의 남방지역을, 그것도 표류라는 극한 상황을 체험하면서 기록한 것은 유일무이하다. 이 책은 3권으로 나뉘어져 있고 제1권이 바다에서의 표류와 도착과정을 기술한 것이다.

이 책은 학술적 문학적 가치에 반하여 크게 알려지지 않았고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최근에 서인범 교수가 번역과 주석을 상세하게 하여 책을 펴내 진면목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우선 최부라는 인물을 통해서 조선조 지식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는 효성이 지극했고, 나라에 충성하였으며 책임감이 몹시 강했다. 절대절명의 상황을 맞으면서도 주체적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지도력을 발휘한다. 그의 다양한 체험과 날카로운 관찰력, 비판의식 덕분에 당시의 한중항로의 실상을 확인하고, 바다의 시대적인 의미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조선조의 무지와 왜국의 활동 등은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명나라의 실용적인 생활태도와 자유로운 사고를 알 수 있으며, 오히려 조선이 더 교조적이고, 중국적 세계관에 충실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기록물이 당시에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지는 않다. 최부 자신도 가치관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조선조의 시대정신이 그런 행위와 사고를 수용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표해록은 최부라는 세상경험이 부족하고 교조적인 지식인의 한계와 조선조의 비애를 동시에 보여준다.

윤 명 철  
문과대 사학과 겸임교수



## ■ 표해록

### 중국표류 선비이야기 교조적인 조선 묘사



## ■ 자유론

### 사회적 통제 한계와 개인 자유 한계 고민

루소가 그로부터 백년전에 제기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하고 있다.

밀은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유명한 말로 공리의 질적인 차이를 주장한 사람이다.

그의 공리주의는 '모든 개인은 행복을 원한다' ⇒ '행복은 좋은 것이다' ⇒ '따라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복을 원해야 한다(최대다수의 최대행복)'는 추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정말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감정(심리적 능력)이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이 책이 나온 후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밀이 개인의 자유(개별성)와 사회성이 충돌할 경우에 대해 적절한 처방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귀족, 상류층, 엘리트의 관습과 전통을 사회적 선호로 설정하고, 그것으로 대중을 억압하는 '도덕적 전체주의자'라고 비판했고, 다른 쪽에서는 그가 개인의 개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관습이라는 이름의 '다수의 횡포'에 맞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를 제공하는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고 옹호하고 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각자 책을 읽으면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밀이 개인의 자아 완성성은 오직 자유의 증진에 있으며, 자유의 증진은 개인의 개별성을 최대한 옹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며, 자유란 사회적 선호나 혐오에 대해 저항하는 수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책은 서설, 사상과 언론의 자유, 행복의 한 요소로서의 개성, 개인에 대한 사회적 권위의 한계, 원리의 적용 등 5장으로 된 짧은 책이다. 원문은 놀랍도록 난해하지만, 몇몇 잘된 번역서는 읽기에 큰 어려움이 없다.

이 가을에 '자유론'과 더불어 '자유'를 쟁취해 보자. 자신을 자유롭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유 개인이 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일 것이기 때문에, 자유의 쟁취는 고도한 지적, 도덕적 성실성에 근거한 '자유 행위'여야 한다.

구 승 회  
문과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사람들은 '자유'의 존재임을 믿는다. 원하는 바를 말할 수 있으며, 원하는 대로 행동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는 반문할 필요도 없는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자발적인 여성 섹스판매업자의 벌이 노동, 개인의 양심과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하게 번 돈으로 마약을 복용하는 것, 자발적으로 상호 동의된 혼외성관계..... 이 모든 자유는 제한되고 있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동체'인 사회에서 자유보다는 부자유가 더 많이 유통되는 건 무슨 이유에서일까? 그렇다면 '개인은 자유롭다'는 믿음은 허구인가?

이런 의문은 이미 수백년 전부터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루소는 '사회계약론(1762)'의 첫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다 :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난다. 그러나 모든 곳에서 인간은 굴레에 갇혀 있다. (.....) 어떻게 이런 변화가 나타났는가? 나로서는 잘 모르겠다. 이런 굴레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완전히 고립된 개인에게 자유란 없으며, 어떤 제약도 없이 사회적 굴레로부터 자유로운 자율적 개인이란 단순한 악성 유토피아이다. 자유란 오로지 사회 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사회적 사실'이기 때문에, 사회성의 원리(공리의 원리)내에서 자유를 논할 때만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의 '자유론(1859)'은 개인의 사상과 행동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한계를 정하고, 사회적 제한을 어디까지 인내 수용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 저항해야 하는가를 논하는 고전적인 연구로서,

고전(古典)은 시대를 초월해 오랜 세월에 걸쳐 널리 애독되는 걸작을 일컫는다. 이런 고전은 일시적으로 이목을 끄는 작품과 달리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도 회자될 정도로 그 가치가 높아 본교에서도 지난 2003학년도부터 고전관련 강좌를 매학기 개설하고 있다. 이에 본사에서는 각 분야별 교수들에게 고전작품을 추천 받아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 ■ 글 실는 순서

1. 문학
2. 인문과학  
동양철학  
서양철학  
역사학
3. 사회과학
4. 자연과학

보리소

Blik

학교에 나가지만 하면 학교와 교수들이 자신을 살해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한 의대생이 있다. 교수가 그 의대생 집으로 가서 학교나 교수들은 결코 살해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또 학교는 매우 유익한 곳이며, 교수들은 학생이 훌륭한 인격과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여러 증거들을 눈으로 보고, 또 이런 말을 들은 의대생은 자신이 보고들은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자신의 신념을 확인해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이것들은 자신을 유인하여 학교에 나가게 하려는 술책이며, 학교에 나가지만 하면 바로 살해당할 것이라고 더욱 굳게 믿는다. 물론 꾸며낸 이야기이지만, 의대생의 이러한 신념을 'Blik'이라 하고, 종교학에서는 인간이면 누구나 어떤 종류의 Blik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반증할 수 있는 사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확고해지는 신념 같은 것이 Blik이다.

기(紀)나라 어떤 사람은 방을 나가면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깨질까(天崩地解)를 염려하여 방에서 절대로 나가지 못했다고 한다. 기우(紀憂)가 그것이다.

이 두 이야기는 병리나 쓸데없는 걱정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의대생이나 기타라 사람은 지금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위협으로부터의 도피가 지상과제인데, Blik과 기우는 도피처가 없다. 그래서 Blik과 기우에는 그 위협이 내부로부터 온 것이건, 아니면 외부에서 온 것이건, 이런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

우리 삶 자체가 Blik과 기우로 가득 차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종종 "제발 기우이기들"하고 바라기 때문이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시경'에서는 "끓임없이 전전금금(戰戰兢兢)하라!"고 가르친다.

유 훈 우
문과대 철학과 교수

지금 우리는 일찌감치 경험하지 못했던 치열한 국론분열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저주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는 외환 위기때보다도 더 참혹한 체감경기를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우리사회를 저신뢰 사회에서 고신뢰 사회로 전환시키는 일이며 이를 위한 사고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후쿠야마라는 학자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초래하게 된 원인이 저신뢰 사회였기 때문이라 진단한 바 있다.

저신뢰 사회의 경제적 비효율

우리는 현재 극단적인 저신뢰 사회에 살고 있다.

국민이 정부와 국회와 사법부를 총체적으로 불신하고 있으며, 노동자와 기업이 서로 반목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와 선생을 불신하며, 야당과 여당이, 영남과 호남이, 더 나아가 남과 북이 서로를 불신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우리가 그나마 오늘날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며 사는 것이 어찌보면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논단

송 일 호
사회과학대 경제학과 교수

고신뢰(高信賴)의

사회를 꿈꾸며

이러한 저신뢰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기주의적 사고와 행동이며 그 결과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에 걸쳐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불신으로 비롯된 사회의 부조리성

불신은 비도덕적이며 비생산적이고 비합리

적인 사고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이러한 사고는 공정한 게임의 룰을 거부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부정부패, 파업, 교실붕괴, 지역갈등, 정치불신 등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를 우울하고 어둡게 만들고 있다. 서로를 불신한 채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질주하다 보면 공멸하는 우를 범하기 쉽다.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먼저 사회의 각 주체들이 열린 마음으로 서로간의 신뢰를 회

복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람의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이기주의의 팽배와 인간성 상실로 인한 사회의 총체적 위기속에서 신뢰회복을 기대하기란 무리일 것이다.

고신뢰 사회위한 발판 마련돼야

드러커에 의하면 경제발전이 있어 최대의 자원은 인간이라 했듯이 사람의 사고가 바뀌어야 제대로 된 생산과 분배의 원리가 나온다. 농산물이건 반도체 생산이건 그것은 생산의 원리처럼 조화롭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통해 생산되고 분배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살아나면 모든 부문에서 발생했던 비효율이 제거되고 사회적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 정보화나 첨단기술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나 원칙을 중요시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세련된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이 더욱 더 절실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저신뢰라는 거적을 걷어내고 고신뢰라는 웅덩이를 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전제조건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열린글터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TEL : 2260-3491 · 2 FAX : 2279-1270 문의 · 제보 : dgupress@dongguk.edu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고전소개 기획, 좋은 시도 일방적 칼럼 씬쓸함 남겨

지난호 동대신문에서 눈길을 끈 것 중 하나는 학술 부분이었다. 강의서적이 아니면 책을 잘 접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각 분야별 교수들이 직접 고전을 소개·추천하는 방식은 고전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친근함으로 바꿔주는 좋은 시도라고 평가한다. 앞으로도 각 분야에 걸쳐 몇 차례 더 연재될 예정이어서 꾸준히 눈여겨 볼만한 기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동국 커리어 엘리트 프로그램(DCEP) 개편 예정에 대한 소개를 자세하게 실어, 취업에 대비하여 실무능력과 인간관계능력 등의 향상을 꾀하려는 학생들에게 신속하고 알찬 내용을 제공하려고 한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또 한 가지 눈길을 끈 것은 여론·칼럼 부분의 '무지한 학생'이라는 글이었다. 교수님의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열심히 준비했을 학생들을 생각하니 마음 한편이 씩씩하다. 교수님은, 학교의 비협조적 태도와 일부 학생들의 무관심,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서투른 노력에 분개하여 그렇게 쓰셨을 것이라 믿는다. 이처럼 교수권과 학습권, 생활권에 대한 상호간의 논의와 조율은 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양이나 학교 소식, 일종의 토크의 장 마련 등 도움이 되는 기사들이 많아 동대신문에 대한 막연한 인식을 바꿀 수 있어 기뻐다. 앞으로도 동대신문을 읽는 독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흥미에 발맞추었으면 한다.

이강산(사과대 사회2)

소나기 총학, 후보자 미출마로 선거 무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직접 하지도 않을 거면서 뒤에서 욕만 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나요.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면 도전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요.

△남을 위해 소리치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날이 갈수록 먹고 살기 쉽지 않고 취업이 힘든 세상이 되고 있어 학생회와 같은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인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지금의 현실 그 대로의 생각이 든다.

△정말 한심한 상황이다.

△총학생회가 꼭 필요한가요 △홈페이지 나의주장에서 항상 총학 비판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총학생회 자체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학교들은 경선도 하는데... 우리학교는 왜 이런 상황인지.

△선거 무산되면 1년 동안 우리 학교에 총학생회는 없는 건가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 총학후보로 나올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한다.

△학생회의 위기가 점차 심각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학교 총학생회는 곧 한 종편이라는 생각부터 없어야 할 때입니다.

타인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부터 돌아보아야

날씨가 추워졌다. 낙엽이 많이 떨어진 거리를 목도리를 두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곧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 올 이때쯤이면 가슴이 따듯해지는 얘기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

며칠 전 인터넷 뉴스에서 소소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다. 제과점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팔 다리를 못 쓰는 노숙자에게 빵을 직접 먹여주는 모습을 지나가던 행인이 핸드폰으로 찍어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야기다.

이 사진은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각종 신문이 앞다투어 이 소식을 전했다.

선행의 당사자인 김지민과 관련한 검색 사이트가 새로운 유행어 아이콘으로 떠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있다.

물론 좋은 얘기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에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도, 욕을 하기도 했다. 교원일용시료를 준비하는 김양이 짜고 하는 일이 아니냐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진실이든, 혹은 정말로 짜고한 일이든, 남의 선행에 의심하고 손가락질을 하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한번쯤 그런 일을 해보았는지 생각해보고 반성해 보자.

박진아(경명대 광고2)

의무와 책임 선행된 권리주장 실내흡연 근절노력부터

도서관 남자화장실 각 칸에는 얼마전 화장실 내 흡연으로 휴지통이 전소되었으니 금연을 부탁한다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전보다 화장실내 흡연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이에 개의치 않고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실내화장실을 비롯한 건물 내 흡연은 환기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화재 등의 위험이 있어 학생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금연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도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보면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 아쉽다.

대학의 주체인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주장하면서도 의무와 책임은 도외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물내 흡연은 이런 사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이 주인된 도리는 하지 않으면서 이익만 내세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에 학생자치단체는 대학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물 내 금연을 유도하고, 학교당국 또한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함으로써 실내 흡연을 점진적으로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김병수(법과대 법3)

'배려'로 가득한 도서관 문화 기대

요즘 도서관에 가면 암체족들로 인해 화가 날 때가 종종 있다.

도서관 3층에는 학생들의 도서검색이나 인터넷 검색 등을 위해 컴퓨터가 설치돼 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이 이곳 컴퓨터를 이용해 몇 시간씩 인터넷 강의 등을 시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급하게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일은 자료실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자료실 검색대 컴퓨터 중 인터넷이 설치된 한 대의 컴퓨터에서 역시 장시간 리포트를 쓰거나 인터넷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 이 또한 기다리는 학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도서관 측에서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 일일이 관리하고 제재를 가하기는 사실상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이 먼저 의식을 고쳐 다른 학생들을 최대한 배려할 줄 아는 자세를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가급적으로 자제할 줄 아는 대학생이 돼야 할 것이다.

이대영(사과대 신방2)

2학기 도서 특별 할인 판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다량관 서점 소장도서와 KG북플러스 제휴도서를 특별 할인 판매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기간 : 2004. 11. 15(월)~11. 26(금)(2주간)

2. 장소 : 다량관 구내서점, 상록원 입구

3. 할인도서

Table with 3 columns: 구분, 내용, 할인 및 판매가격. Includes KG북 플러스 (상록원입구) and 구내서점 (다량관) categories.

4. 한정수량만 판매하므로 조기품절 될 수 있음

\* 문의 : 다량관 교내서점 ☎02-2260-8956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05학년도 전과 (전공변경)

- 1. 지원자격: 2학년과정을 수료하고 총 성적의 평점평균이(C성적을 포함) 2.5 이상인 진급예정자
2. 전공변경 대상전공(학과): 원칙상 계열제한 없이 전 전공(학과)
3. 제한사항: 가. 경험평점학과의 전공(학과) 변경 나. 캠퍼스간 전공(학과) 변경
4. 전공(학과)변경 허용인원: 전입 전공(학과) 2003학년도 입학정원의 50%(사범계열 20%)
5. 시행 일정: 가. 원서접수 (1) 접수처: 전입희망 전공 소속대학 교학과(아간은 아간장과 교학과) (2) 접수기간 ① 재학생인 3학년 진급예정자 : 2004. 11. 15(월)~19(금) ② 2005학년도 1학기 3학년 복학예정자(1차) : 2004. 11. 29(월) ~12. 1(수) (3) 구비서류 ① 전공(학과)변경원 ② 자기소개서 및 학업이수계획서 \* 예체능계 지원자는 별도의 전형료(W30,000)를 납부하여야 함 나. 면접 및 실기고사 : 전공(학과)별 일정에 따라 2004. 12. 13(월) ~18(토)
6.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가. 일반계열 : 1. 2학년 누계성적평점(100%)+면접 나. 예체능계 : 1. 2학년 누계성적평점(70%) + 실기고사(30%) + 면접 다. 사범계열(체육교육예외) : 1. 2학년 누계성적평점(90%) + 교직 인·적성검사(5%) + 면접(5%)
라. 체육교육과 : 1. 2학년 누계성적평점(60%) + 실기고사(30%) + 교직 인·적성검사(5%) + 면접(5%)
7. 기타 세부사항은 소속대학 교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무처

2005학년도 1학기 복학·재입학 안내(1차)

- 1. 복학: 가. 접수일자 : 2004. 11. 29(월) - 12. 1(수) 나. 구비서류 (1) 일반복학자 : 복학원서 1부,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군복학자 : 복학원서, 복학원서, 주민등록초본-전역일자 기재된 것 1부 (\*전역예정자는 재대 후 반드시 전역증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2. 재입학: 가. 접수일자 : 2004. 11. 29(월) - 12. 1(수) 나. 등록일자 : 2004. 12. 6(월) - 12. 8(수) 교내 재입학은 (\* 미등록시 재입학이 취소됨.) 다. 재입학 대상자 : 퇴학 및 학사장계의 사유로 제적된 자로서 2005년 1학기 재입학 희망자. 단, 학사장계 제적자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가능하다.
3. 접수장소 : 소속대학과 교과과.

교무처

2005학년도 1학기 휴학 안내(1차)

- 1. 일반 휴학: 가. 접수일자 : 2004. 12. 6(월) - 12. 8(수) 나. 접수장소 : 소속대학 교과과 다. 휴학 대상자 :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 라. 신청서류 (1)일반휴학신청서 : 일반휴학원, 휴학원장원(휴학원장서) 1부, (2) 휴학원장서 : 휴학원장서 휴학원장원 1부, (학교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2. 군입영 휴학: 가. 접수일자 : 상시 (군입영 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직전 까지) 나. 접수장소 : 소속대학 교과과 다. 제출서류 : 군입영통지서 사본, 군입영휴학원 각 1부. 라. 유의사항 (1) 일반휴학기간중에 군입영휴학사유가 발생하면 경우에도 다시 군입영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군입영휴학자는 입영일부러 휴학합니다. (3) 군입영 휴학자라도 학기 2/3이상부터는 해당학기가 인정됩니다. (4) 군입영 휴학전 반드시 개별 시험을 치르고 해당학기 성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성적 미 취득시 성적경고입니다. (6) 군입영휴학으로 성적평정기간에 성적평정이 불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처

달하나 천강에

미래의 가정, 가상적 가정이 되지 않는 걸까?



박명희 사범대 가정교육과 교수

요즘 대학생들 중 사이월드의 미니홈피를 모르면 한국의 대학생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현할 수 있는 공간, 가족이 아니지만 가상적으로 가족과 같은 친밀성이 존재한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놓아치려 생각하고 즐기는 가상의 현실은 실제 우리의 현실보다는 더 즐겁고 아름답고 또 화려하다.

집 지휘하고 연출하는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어 내는 작업을 스스로 하는 셈이다.

즉, 소비자는 상품의 사용가치나 교환가치가 아니라 그 상품에 스며있는 이야기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사이버월드에서 침착한 20대들의 이러한 가상성에의 추구는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내가 재미를 느끼고 싶을 때만 이웃집 아이를 내 아이 키우는 재미처럼 함께 키우고 즐겨워하고,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므로 아이는 낳지 않고, 젊고 아름다울 때만 사랑하고 시간이 지나 늙고 병들게 되면 서로 이혼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감성은 어디에서 키워질까?

그리고 가상세계를 통해 가장 바라는 꿈이 자신만의 보금자리에서 가족과 행복하게 보내는 모습일지...

사설

알 권리와 책임 의식

지난주 본사에서는 본교 연구업적평가가 저조한 원인으로 정교수의 연구실적부진을 지적한 바 있다.

그결과 이미 논문 한 편도 게재하지 않은 정교수의 수가 두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음에도...

그러나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의 설득력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물론 자료가 악용·왜곡되거나 독자의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면 이를 신중히 판단해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연구자는 정교수의 연구실적을 향상시키고 공부하는 대학을 만들자는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학교 발전을 위해 보다 친척적이고 책임감 있는 연구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미디어리

영어공화국

▲요즘 영어마을이 인기라고 한다. 얼마전 경기도지사가 안산시와 파주시에 영어마을을 조성한다고 밝힌데...

'언어를 통해 사고하고,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는' 인간의 특성상 우리말 대신 영어가 우리사고를 지배하는 동시에...



하지만 한글학계에서는 "사대주의적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영어상용(또는 공용)화 논란은 소설가 박경리 씨의 영어공용화 주장 이후부터 본격화됐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언어를 제대로 계승하지 않은 채 맹목적으로 영어를 상용화할 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 속에서 영어상용화 움직임을 이제는 대학들마저 선도하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언어를 제대로 계승하지 않은 채 맹목적으로 영어를 상용화할 때 발생할 수 있다.

최성민 편집장 qwertewq@dongguk.edu

동국 시문학의 발자취

그해 겨울의 눈

이형기

그해 겨울의 눈은 언제나 한밤중 바다에 내렸다

회부영계 한밤중 어둠을 밝히듯 죽은 여명의 만디벌레들이 일제히 썩어내린 불빛으로 어지럽게 흩날렸다

눈송이는 바다에 녹지 않았다 녹기 전에 또 다른 송이가 떨어졌다 사라짐과 나타남 나타남과 사라짐이 함께 돌아가는 무성 영화 시대의 환상의 필름

덧없는 목숨을 혼신의 힘으로 확인하는 드라마 클라이막스밖에 없는 화면들이 관개 없는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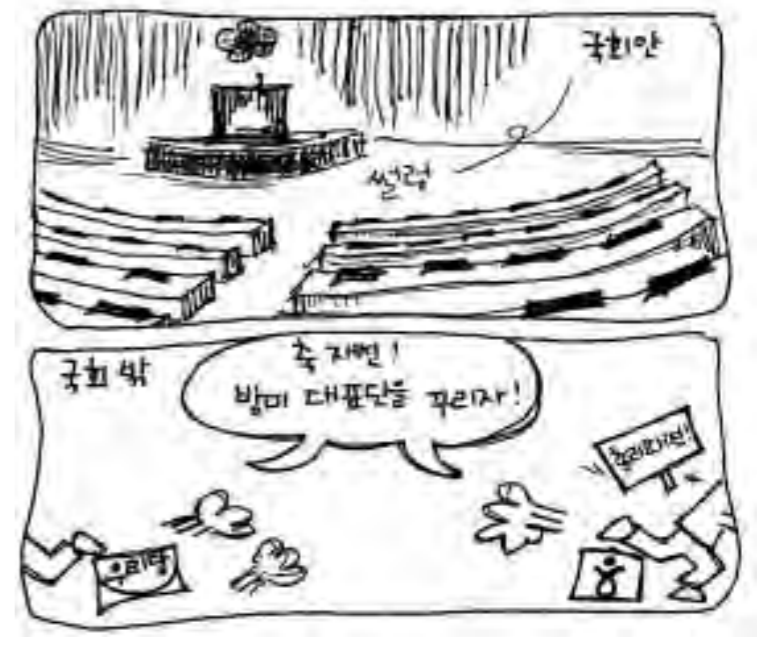
언제나 한밤중 바다에 내린 그해 겨울의 눈 그것은 꽃보다도 화려한 낭비였다

죽음이 삶의 일부로 여겨지는 순간이 때로 있다. 눈 내릴 때의 장엄한 풍경이 그러하다.

유임하 한국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동국만평

이호선 icezz@hanmail.net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흥기삼 편집인 김주환 부주장 권본철 편집국장 류변성 편집장 최성민

11월 장학생 선발시험 및 민법특강

11월 장학생 선발시험

- 1. 대상 :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전동국인(재학생, 졸업생)
2. 일시 : 2004년 11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30분
3. 장소 : 동국관 M 303, M 305, M 307
4. 시험내용

Table with 4 columns: 학년, 시험과목, 시험범위, 시험방법

5. 장학금

성적순으로 차등지급을 원칙으로 한(10,20,30,40만원),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계산고시학과 11월 입실을 원칙으로 하며 사법시험반에서 제공되는 각종혜택의 우선권이 주어짐.

6. 응시료 : 급입현원

(단, 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시험종료 후 환불반응-응시료 waived)

7. 원서접수

계산고시학과 2층 조교실, 2004년 11월 11일(목) ~ 15일(월) 오후 5시까지

8. 주의사항

시험과 관련된 부정행위 적발시 추후 시험응시자격 박탈됨, 10월 강제폐지자는 응시불가

9. 민법특강

- 1. 기 간 : 11월 8일 ~ 12월 11일 (총 28회, 일요일제외)
2. 시 간 : 월~금 오후 6:30 ~ 7:30(시험) → 7:40 ~ 10:00(해설 및 정답정리)
3. 장 소 : J 410 (월~금), M 302 (토)
4. 강 사 : 오양근 (현 한국법학교육원 민법강사)
5. 교 재 : 현직교수 출제 진도별 모의고사(40문제)
6. 신청장소 : 계산고시학과 2층 조교실(문의전화 2260-9685)
7. 수강료 : 계산고시학과 사법시험반 입학생 1만원, 본교 재학생·졸업생 2만원
8. 신청기간 : 11월 4일 ~ 11월 9일 17시까지
9. 기타사항 : 본 강의는 비디오 강의로 진행되며 OMR 답안지 작성이므로 컴퓨터용 싸인펜 지참요함.

고시지도위원회 사법시험반

2005학년도 전기 신입생모집(야간) 경영학석사(MBA) 및 최고경영자과정

석사학위과정(MBA)

- 모집학과 및 전공 : 경영학과 : 조직, 인사관리, 마케팅, 재무, 증권금융, 국제경영 전공
회계학과 : 회계학, 세무회계 전공
무역학과 : 인터넷무역 전공
경영정보학과 : 경영정보, 국판관리(총재) 전공
부동산학과 : 부동산 전공
호텔관광경영학과 : 호텔관광경영, 이벤트경영 전공

교육특성

- 사례중심 수업
- 석사학위 논문 또는 경영사례연구보고서 중 선택 가능

원서교부 및 접수

- 2004.11.18(목) ~ 11.25(목), 경영대학원 교학부학술관 1층
- 입학원서소장장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반영률 50% 1부
-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및 대학성적증명서 각 1부
- 재직증명서 1통(해당자)

진행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연 집 : 2004.11.27(토) 13:00, 본교 학술관 1층(서울)

특 전

- 공무원, 판·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직업군인 등에 정학혜택

최고경영자 과정

- 과정특성 : 국내외 저명인사초청 '경영환경특강' 실시
동국대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1년~2년 과정)
경영대학원 총학생회 및 동국 CEO포럼 활동 참여
동국대 총동창회 및 경영대학원 동창회 회원자격부여

응시자격

- 학력 제한없음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방법, 특전
- 석사과정과 동일

http://graduate.dongguk.edu/ba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TEL : (02)2260-3106~7 FAX : (02)2267-8021

이벤트·컨벤션 전문가 자격증 제7기 단기교육과정 모집



국제스페셜이벤트협회(ICES) 공인 미국조지워싱턴대학 공동프로그램

- 과정특성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이 개발하고 세계 13개 유명대학이 공동 개설하는 프로그램
미국 국제스페셜이벤트협회(ICES)에서 인준한 조지워싱턴대학 Event Management 자격증 수여
미국 GWU 출신교수 및 국내 최고의 현직전문가 중심의 강사진 구성
국내 13개 이벤트·컨벤션 선도기업과의 인턴재능실용학 계약

교육내용 및 강사진

- 강사진의 이력 및 교육과정은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교육기간

- 1학기과정 : 수업일시 : 수, 목, 금요일, 오후 6:30~9:40

모집요강

- 모집인원 : 00명
- 원서접수 : 2004.11.18(목)~12.9(목), 경영대학원 교학부학술관 1층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연 집 : 2004.12.11(토) 14:00, 본교 학술관 1층

이벤트 홈페이지

- http://www.koevent.or.kr
- http://www.gwu.edu/emp



누구나 볼 수 있는 저렴한 공연 관람료

문화공연비 분석

‘기반 확충’ 영양주사로 문화 공공성 확보부터

영화 관객 천만시대가 왔다. 이제 영화는 대중문화로서 확고한 위치를 선 것이다.

영화 관람료는 한 편당 7천원 정도이다. 그런데 영화관과 통신사 등의 제휴를 통해 1천5백~2천원 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실제로 5천원 대에 한 편을 볼 수 있게 된다.

‘문화용돈’ 부족한 대학생

대학생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문화공연은 영화 외에도 연극·뮤지컬·콘서트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진영(신광외양)은 “영화는 한달에 두 세편 정도 봐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연극이나 콘서트는 관심이 있어도 가격이 비싸 한달에 한번 보기도 힘들다”고 말한다.

지난달 분사에서 본교생 240명(남학생 136명·여학생 104명)을 대상으로 용돈 액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2.08%의 학생이 한달에 20~30만원을 용돈으로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이 종교비용과 식비·각종 모임비·학습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많은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은 여의치 않다.

문화적 기반 미비 문제

과연 공연제작자들은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일까.

관람비를 줄이려면 먼저 공연 제작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 등을 통한 문화의 공공성을 확대해 주체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공연장의 사정은 매우 열악하다. 한 예로 뮤지컬 전용극장이 없어 기존에 국제 세미나실로 건축된 곳을 개조해 공연을 하는 등의 일도 있다.

또한 오페라 공연도 우리나라의 경우 1~3회의 단기공연으로 그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무대·의상 등을 단 세

번만에 끝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출연료 등 추가 부담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화연대 김형진 씨는 “공연료가 낮아 지려면 먼저 문화적 공공성을 확대시키고 공공 문화기반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공공기관 소속 단체들은 높은 질을 갖춘 무료 공연을 많이 실시하고 있어 클래식을 좋아하면서도 수 십만원대의 관람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대학생들은 이런 공연을 많이 찾고 있다.

또한 공연료를 낮추기 위해 현재 한국 문예진흥원에서는 ‘사랑티켓’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문예진흥원이 지원하는 사랑티켓은 사랑티켓에 참여한 여러 공연들을 5천원 할인된 가격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특정 문화가 지속적으로 어느 한 계층만의 문화로 존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 확대와 문화적 공공 기반 형성이 필요하다.

특히 각 문화 공연 분야의 특성이 다른 것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면 대학생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다시 화려한 ‘은막’ 향해  
우천으로 행사 어수선 아쉬움

‘지금은 흔적조차 찾기 힘든 거리에 예전의 모습을 21세기 현대식으로 재구현한다.’ 영화제작사와 배우, 극장 등이 밀집해 ‘영화의 거리’로 불렸던 충무로. 이런 충무로를 다시 영화의 거리로 도약시키기 위해 영화계가 분주하다.

충무로 영화의거리 추진협의회와 (사)한국영화인 협회, (사)한국 영화배우 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중구청이 후원한 ‘제1회 충무로 영화의 거리 페스티벌’이 지난 5일 충무로 극동빌딩 후문(은막길)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한국영화 100년사 사진·포스터 전시 △타악 퍼포먼스 △축하공연 △영화배우 장기자랑 등이 진행됐고 지역상인들의 관광객, 주변 거주자들이 함께하는 축제였다. 근처 식당에서 일하는 김명숙(42)씨는 “영화의 거리 조성 사업이 추진돼 근처 상권도 함께 발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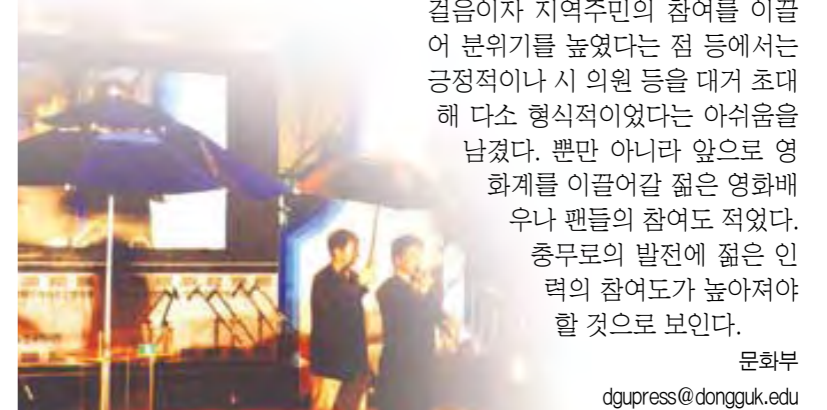
좁은 사거리에 무대와 관객석이 설치돼 다소 복잡했지만 슬레이트 모양의 무대 배경도 신기했고 낮익은 영화감독들이 참석해 행사장의 분위기는 뜨거웠다.

충무로 영화의 거리 추진협의회 김갑의 회장은 “앞으로 영화의 거리 조성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영화인과 영화팬들이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낙할 중구청장은 “청계천 복원과 함께 충무로의 기반시설 정비·녹화사업 실시·영화산업 특성화 등 영화를 테마로 한 독특한 문화의 거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사 도중 거세진 빗줄기로 ‘영화인들의 릴레이 축하 인터뷰’ 등의 프로그램이 취소되고 은막길 사거리가 가득 메운 300여명의 관중들이 비를 피해 하나 둘 자리를 떠나면서 행사는 다소 어수선하게 마무리 됐다.

이번 행사는 지역발전을 위한 첫 걸음이자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분위기를 높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거나 시 의원 등을 대거 초대해 다소 형식적이었던 아쉬움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화계를 이끌어갈 젊은 영화배우나 팬들의 참여도 적었다. 충무로의 발전에 많은 인력의 참여도가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 dgupress@dongguk.edu



매체비평

영화 편

독립영화인 국가보안법 철폐 프로젝트

국가보법 본질언급 미비 폐지 설득력 약해



세번째 에피소드 ‘우익청년 윤성호’의 한 장면.

인디다큐페스티벌2004에서 특별상영된 ‘독립영화인 국가보안법 철폐 프로젝트’는 영화제에서 기획하고 젊은 독립다큐멘터리 감독들이 에피소드 하나씩을 연출하는 방식으로 참여한 옴니버스 프로젝트였다.

국가보안법 존재 문제가 첨예한 사회적 화두로 부각되어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영화를 통해 국가보안법을 이야기하고 국가보

안법 폐지의 공감대를 넓혀겠다는 기획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진다. 여섯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이 옴니버스 영화는 전반적으로 무척 재미있고 유쾌하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무거운 주제에 즐겁게 접근하는 것 또한 젊은 감독들의 개성이 아닐까 싶다.

세 번째 에피소드 ‘우익청년 윤성호’는

우리사회의 반공이데올로기를 상대로 거침없는 풍자의 언설을 쏟아내고 있으며, 여섯 번째 에피소드 ‘캐치 미 이프 유 캔’에서는 보수 우익의 집회에서 인공기를 흔들며 국가보안법을 고의로 위반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려던 스태프들이 정작 집회의 공포스런 분위기에 질려 퍼포먼스를 포기하고 마는 상황의 아이러니를 통해 웃음을 유발한다.

네 번째 에피소드 ‘학살된 두려움과 과대망상’은 보수 우익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는데, 예비역 대령연합회의 서야무개 회장은 인터뷰 말미에 ‘오늘 인터뷰가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비장한 표현으로 ‘좌익이 활개치는 사회에 대한 공포’를 드러내고, 집회장의 어느 아주머니들은 ‘주여 도와주세요, 우린 공산당 우상이 싫어요’라는 절규로 공포의 대열에 동참한다. 가상의 공포에 대한 우익의 히스테리는 웃음거리가 된다.

첫 번째 에피소드 ‘나쁜 피’ 역시 종횡무진 패러디 장치를 통해 관객을 폭소의 도

가니로 몰고 간다.

각각의 에피소드에는 발랄한 고발정신과 독특한 개성이 넘친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거나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대중들을 설득하고 공감케 하는 힘에서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남태권 감독은 조작사건을 다룬, 두 번째 에피소드 ‘남태와 진달래’는 공간기관의 필요에 따라 평범한 사회운동가들 간첩으로 몰아가는 현실의 일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냉정한 이성적 고찰을 돕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본질이 무엇이고 국민들에게 어떤 고통과 피해를 주었는가에 대해 차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정도 더 추가했다면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는다.

‘독립영화인 국가보안법 철폐 프로젝트’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의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영화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남태 권 다큐멘터리 감독

**제42회 동대 학술상 작품 모집**

1. 모집분야 : 인문과학상, 사회과학상, 자연과학상
2. 응모요령 : 3개 분야 모두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3. 시 상 : 각 분야별 장원 1명 70만원, 가작 1명 50만원
4. 응모자격 : 본교 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5. 제 출 : 10월 25일(월)~11월 12일(금)까지 방문·직접·우편 접수
6. 입상발표 : 2004년 11월 22일자 동대신문
7. 문 의 : 02) 2260-3491~2

**너 그거 아니?  
네 안에 숨겨진 생각,  
상상보다 크다는 거**

**제19회 동대 문학상 작품 모집**

1. 모집분야 : 시부, 소설부, 희곡·시나리오부
2. 응모요령 : 시부문 3편 내외, 소설부문, 희곡·시나리오부문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3. 시 상 : 각 분야별 장원 1명 50만원, 가작 1명 30만원
4. 응모자격 : 본교 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5. 제 출 : 10월 25일(월)~11월 12일(금)까지 방문·직접·우편 접수
6. 입상발표 : 2004년 11월 22일자 동대신문
7. 문 의 : 02) 2260-3491~2

동대신문사

**제22회 명찰 순례**

萬海앞에

그대 넓기 깨마의 고된 갈아서  
부끄러워 몸 숨기는 빛나간 무리  
잘못된 생각도 크게 보듬어 주시고  
그대 빛나기 별과 같아서  
세상 뜨신 지 반 백년이 넘었는데도  
멀리서 우리 알길 환하게 밝혀주시고  
천근의 무게로 우리를 잡아 주시고  
그대 높기 백두산 같아서  
멀리서 우리 알길 환하게 밝혀주시고  
눈앞의 잇속에 갈팡질팡 헤매릴 때  
우리 같던 길을 높은 데서 가리켜 주시고

신 경 립(시인)

멀리서 우리 알길 밝혀주시고  
근해의 숨결이 머물던 곳,  
‘백담사’로의 기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순례일자 : 2004. 11. 12(금) ~ 11. 13(토) <1박2일>
2. 순례장소 : 강원도 인제군 설악산 백담사
3. 참가대상 : 전 동국인(45명) - 선착순으로 접수함
4. 참가비 : 오천원(W5,000)
5. 접수기간 : 2004. 10. 27(수) ~ 11. 9(화)
6. 접수처 : 본관 학생복지실(☎2260-3048)
7. 출발일시 및 장소 : 2004. 11. 12(금) 오후4시, 정각원 앞

학 생 처

**제3회 동국청우수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제7~10대 회장이셨던 故 청우 최재구 선생의 동국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제3회 동국청우수상’ 수상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받습니다.

1. 추천대상 : 동국인(동문, 교수, 직원, 학생)
2. 구비서류
  - 1) 추천서(A4용지, 형식자유, 공적사항 明記) 1부
  - 2) 피추천인 이력서 및 사진 1부
  - 3) 공적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1부
3. 접수미감 : 2004년 11월 25일까지
4. 시 상 : 상패 및 부상(순금 30돈)
5. 시 상 일 : 2004년 12월 16일(목) 오후 6시:30 엠배서더 호텔2층 (총동창회 ‘동국인의 밤’ 행사장)

(100-715) 서울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홍보실내  
전화 016-896-3916(윤천영) / 2260-3025(신관호)

**청우 최재구 선생 추모사업회**  
회 장 류 주 형